

CLC School 주일학교  
2017 년 9 월 기도의 시간

기도하기가 힘든것은

마태복음 7:7-11; 요한복음 15:7; 빌립보서 4:6 을 읽으십시오

위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준다 그러나 기도하기 힘든다는 현실을 우리는 당면하게 된다.

“기도하되, 진정으로 기도하라 그러나 힘들다. 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큰 짐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”

기도하는 것이 또한 미련스럽게 느껴질 수 도 있기 때문일것이다. (고린도전서 2:14)

기도가 당신의 삶과 삶의 형태에 스며들어야해야 짐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. “기도하는 것이 점점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 당신을 기도하는 일에 나태해 질 것이다.”

사실상 “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아 그들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.”

기도하되 기도가 즐겁고, 의미가 있게되도록 간구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기도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어떤 행위라기 보다는 기도의 삶을 살고, 기도를 살아가야 할 것이다.

오늘도 주안에서의 형제, 자매들이 함께 1 시간의 기도를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한다.